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4년 2월

선교편지 제 63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를 디고스 지역에 구입 하였습니다.

학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오랜동안 기도하는 중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 지역의 별명이 '망고 마을'이고, 주민의 생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제외하면 주변이 온통 벌판과 나무뿐 이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토지 가격도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는 것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학생들이 왕래하기 쉬운 곳에 넓은 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부지 구입을 위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망고 나무가 심겨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을 지어 살고 있는 토지 마저도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가 임대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빌려주어 집을 짓거나, 소작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소작이나 임대의 권리를 양도하는 정도일 뿐 실제 소유권은 없는 구조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좋은 위치의 토지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토지 소유주를 만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소위 땅부자들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장기적으로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거래에는 전혀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려움은, 토지 소유주를 가까스로 찾아 협상을 하더라도 판매 하려고 하는 토지 거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의 기본 면적 단위가 '헥타' (10,000 m² / 약 107,000 ft²)로서 교육 기관이나 체육관이 필요한 규모가 아닌 교회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마띠 지역은 '따블리조'라는 이곳 명문 가문의 형제들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온가족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설득도 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을 개별적으로도 찾아가 필요한 부분만 소규모 분할 판매를 하도록 요청해 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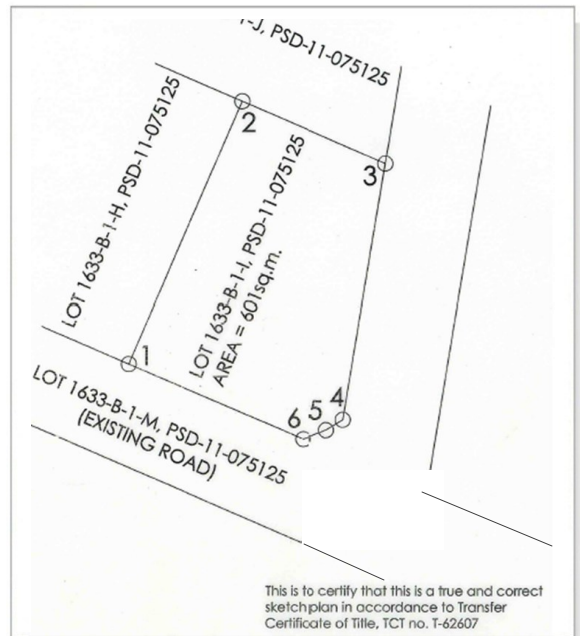
셋째로, 감당할 수있는 규모의 토지를 어렵게 찾아 관련 관공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에, 토지 관련 서류가 실제의 토지 환경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 서류는 50년이 훨씬 넘은 오래 전에 만들어 진 것이어서, 실제 토지와 오래 전에 만들어지 서류와는 도로를 포함한 도시 계획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계획과 달리 물이나 전기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추가 비용이 예상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 이전에 기반 시설 구축에 제한된 모든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외에도 교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낙심이 될 정도로 너무 많아서, 오랜 시간을 안타까움에 기도하며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언제인지..... 그런데 이렇게 위축된 마음 가운데에서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건축될 교회가 작은 마띠 지역뿐만 아니라 디고스 지역의 선교 센터로까지 사용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당하는 학원 사역이 너무 크게 보여서 저희의 시선이 마띠 지역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부지를 찾는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주변 지역까지 바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익핏', '띠구만', '뜨레스마요', '산미구엘'등 인접한 지역들의 마을과 학교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건축될 교회를 통하여 감당해야 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도다 (시 62:5)


마침내 인근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601 m² (약 6,500 ft²)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이미 8m 너비의 길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으로도 도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전기는 바로 연결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한 곳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펌프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과도 같은 큰 도로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새롭게 어린이 선교의 문을 열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결같이 교회 건축을 환영하며 기대 가운데 많은 역할을 부탁 받았습니다. 단지,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구입한 토지 면적이 적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를 저희에게 간절히 매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향후 필요에 따라 면적을 더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건축을 위해서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 서류를 구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 꾸며 건축 업자와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면적으로 인해서 이층으로된 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래 층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며, 윗 층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대 예배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가지 이유로 건축될 교회가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처럼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 건물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곳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 곳에 여호와 닮은 밋시의 깃발이 꽃히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앞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루어야 할 많은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미 승리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이 이 막중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닮이라 하고 (출 17:15)

 마띠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가 아닌 학교 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조용한 동네에,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영화도 보여 주고, 선물도 주는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성경 공부로 인하여 학기 초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이 가득한 가운데 참석하곤 합니다. 마치 유명한 학원 강사처럼 마이크를 사용해야만 소통이 될 정도여서, 약 150여명의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일들은 거의 포기하고 몇 달을 번잡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주 토요일 오전 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한 학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조정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거의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남은 25 명이 소그룹을 형성하고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학생 개개인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 8:17)

이번 제자 훈련 그룹에는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타 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이곳의 주 교통 수단인 트라이시클을 두번이나 갈아 타야 되는 먼 지역에서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며 참석하는 5명의 고등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별도의 차비를 지불해 가며 참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난 후 집에 돌아 갈 때는 이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고 덜어 주기 위하여 살고있는 동네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있지만, 이 학생들이 감당하는 수고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이 없습니다.



‘레이디비’라는 여학생은 ‘발라박’이라는 지형이 험악한 지역에서부터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약 2년전에 선교의 지경을 넓혀 보고자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운전 내내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라박’은 이 근방에서 가장 가까운 이슬람권 지역으로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개발이 미진하여 진입로가 얼마나 가파르고 험한지 모릅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운전으로 인해 시종일관 긴장을 해야하고, 자동차 바닥이 계속 긁혀 고장이 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번째 방문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중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리자’라는 여학생은 저희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데,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다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즉, 학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가사 도우미로서 한 가정의 살림을 맡아서 일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학생입니다. 마띠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 토요일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메리 그레이스’라는 여학생의 가족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필리핀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최대 9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본 적이 있었는데, ‘메리 그레이스’의 형제는 놀랍게도 모두 14명으로 그 중에서 13번째 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만든 양식에 개인 소개를 적도록 했는데, '메리 그레이스'는 다른 학생들보다도 유난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이름과 나이를 적는 공간이 부족해서 뒷장에 적는 것은 물론이고, 14명의 형제 중에서 12명만을 적고 나머지 두 명의 형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손가락으로 세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전에 돌아 가시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형편으로 결혼도 못하고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사메리'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쿠웨이트로 일을 찾아 떠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최근에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 아버지의 자녀는 '제사메리'를 포함하여 5명이고, 새 어머니는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갑자기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하기 어려워서 새 어머니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불어난 많은 식구로 인하여 그전보다 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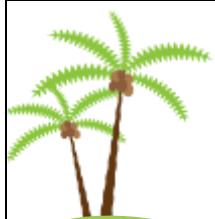
이번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약한 어린 학생들의 얼굴에 마치 '결연함'같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치 축 늘어진 풀들이 신선한 물을 머금고 푸른 빛이 오르는 것처럼 저들의 눈이 소망으로 살아나는 것을 여러번 목격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25명의 학생 중에서 이번 3월 말에 졸업이 예정된 학생은 모두 10명입니다. 모두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품고, 대학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학생들이 이 귀한 과정을 통하여 믿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에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아름답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2014년도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